

2010년 순중고 총동창회보(4월 가족체육대회 때 배부)에 게재할... 기획특별기고문을 받고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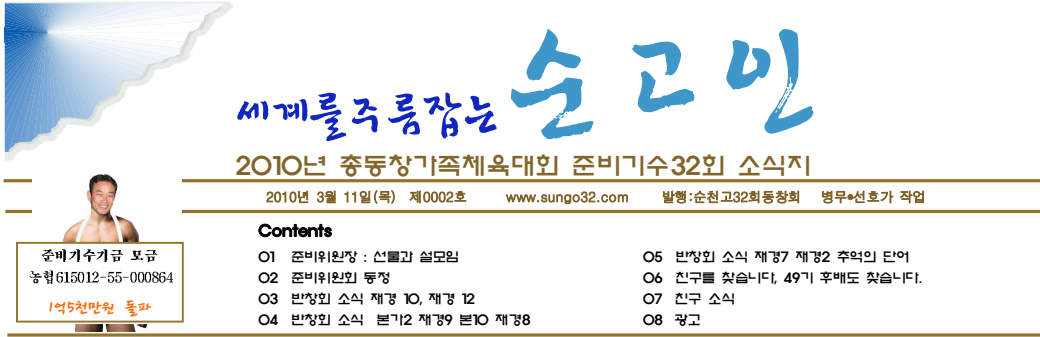
■ 기고문 주제

- 동창회의 미래 제언 : 동창회와 모교의 현재 위상에 대한 느낌과 반성, 바라는 건의사항이나 발전방안, 동창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등
- 총동창가족체육대회의 의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우리 순천고의 미래인 후배기수와의 연대감 증진을 위한 제언
- 순천고를 상징하거나 순천고인의 정신과 특성을 담은 수필이나 시
- 지난 체육대회의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순천고 동문으로서의 회고예락 등 모교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느끼게 하는 내용
- 타 동창회와 비교 (화합과 응집력 등)
- 순천고 동문 가족으로서 느끼고 있는 감정 등

■ 기고문 분량 : A4 용지 2장(글자크기 12P)또는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 기고자 사진(3X4cm)과 기고문을 더욱 빛나게 할 사진도 필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획특별기고문을 받고자 하오니 각 기수별로 적합한 기고자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십시오.



세계를극복하는 순고인

2010년 총동창가족체육대회 준비기수32회 소식지

2010년 3월 11일(목) 제002호 www.sungo32.com 발행:순천고32회동창회 병무:선호가 직접

준비기수기금 모금
농협615012-55-000864
1억5천만원 돌파

Contents

01 준비위원장 : 신철과 설모임	05 빈창외 소식 제77 제78 주역의 단어
02 준비위원장님 등정	06 친구를 찾습니다, 49기 후배도 찾습니다.
03 빈창외 소식 제79, 제78	07 친구 소식
04 빈창외 소식 정기2 제79 정기3 제78	08 광고



“뜻밖의 선물을 받고”

어제(26일) 저녁 약속이 두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달 전에 정해진 모임(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총동창회 신년하례회)이었고, 또 하나는 몇 일전에 재정총동창회 이경우 사무총장(24회)이 통보해 온 재정순천고총동창회 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 신년하례회였습니다. 한 달 전 정해진 모임은 시내 조선호텔에서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먼저 참석하였습니다. 모임 내내 동창회 장학회모임이 떠올라 결국은 이 모임도중 강남에 있는 장학회 모임장소로 8시 40분경에 갔습니다. 거기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장학회 추진위원 중 가장 막내인 제가 소개를 하고 올해 4월25일 체육대회준비기수로서 모임에 나오신 선배님들의 격려와 참석을 호소하는 도중 김대영 선배(11회, 장학회추진위원장, 대림피디 대표이사)가 체육대회 주춧기수인 저에게 준비기금으로 보태 쓰라고 500만원을 주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박입니다 하고 여러 선배들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웬지 꼭 이 모임을 가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장학기금으로 100만원을 약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김대영 선배는 어렵사리 공부하여 무역업으로 성공하신 본인테 장학기금으로 작년엔 1억, 어제 그 자리에서 1억 총 2억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나눔의 미학을 잘 아시고, 순천고 순천고를 사랑하는 진정한 선배님이셨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는 김대영 선배 외에도 여러 선배들이 재정총동창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수천만 원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평준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모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선배님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명문고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성사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글=최종구]

“설모임 행사를 마치고”

바쁘신 와중에 준비위 사무실을 들러서 격려해 주신 동기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일부터 당일치기로 왔다 간 최중구 준비위원장님과 외지에서 오신 32회 동기 여러분 더더욱 고맙습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유선이나 문자로 대신해 준 많은 동기 여러분의 관심에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행사 당일 결정된 중요한 사항이 있어 흠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본행사의 운동장 Lay-Out 문제입니다. 당초 순천에서는 운동장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에서는 운동 경기를 치르고 나머지 반을 2 자 형태의 천막을 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행사 당일엔 과거부터 해왔던 운동장 전체를 2 자 형태로 천막을 치되, 조금 밀집 도를 더하여 Compact한 형태의 운동장 Lay-Out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야제는 전 동문을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순천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검소한 전야제를 치르자는 이유로 캠프파이어나 폭죽행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예인은 37회 후배인 최재원을 섭외하여 활용하고, 가수는 추가열과 몇몇 연예인 정도를 섭외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벤트와 공연 섭외는 물리적 거리상의 이유와 품질을 고려하여 광주의 이벤트사를 섭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희 조직 중에서 조현호와 정광호 동기가 사무국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김철현 동기를 추가로 사무국장으로 영입하고 결원이 된 10만 반장에는 하영철 동기가 수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계획(안)이 준비되는 즉시, 흠을 통하여 동기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저하지마시고 편달 부탁드립니다. [글=김대호]

.. 이번 호 소식지 제작 및 발송에 도움을 주신 동기의 사명제입니다.



현대산업정보연구원
http://www.hiii28.co.kr
웹하드 http://www.hiii28.webhard.co.kr

대표 / 최진우
011-352-5622

주/요/사/업

- 01/원가계산업무
- 02/과장부담금 산정업무
- 03/분양기산한계 산출 절차 업무
- 04/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 업무
- 05/익률연구&조사업무
- 06/유통조사 용역업무
- 07/기술가치 및 평가 업무
- 08/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국가와 기업의 총체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우선 찬사를 보내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은 정부기관,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및 일반기업체등에 경영진단, 원가계산, 각종요금&요금산정, 중장기 산업 경제 발전방안 연구,기술가치 및 기업가치평가,지방자치단체 장기발전 전략 국민경제의 성장 발전적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등 이론적 연구와 실질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설립된 전문학술연구기관입니다.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발행한 **견적실무** 및 **건축자재단가**는 각종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적산,견적,실행예산,정부구매물자재단가 및 자재단가대비표등을 수록하여 적정 공사비산정(공사원가계산)에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준비위원회 동정

일 자	행 사 명	장 소
09/04/25	제36차 총동창가족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	신현우촌,명문7080
09/04/26	제35차 총동창가족체육대회 참가	순천고운동장
09/05/11	계경 준비위원회 전체회의	여의도 열빈
09/05/23	계경 32회 동기 족구대제전 참가	강마루
09/05/24	계광 순증고 가족체육대회 참가	광주 동명중
09/06/13	순증고 총동창 한마음 등반대회 참가	전북 마이산
09/07/06	40기수 직능별 모임 합동 상견례	황소낙지
09/07/22	계경 준비위원모임	서초동 서석대
09/08/19	계경 준비위원모임	구로 별교집
09/08/23	계경 한마음포럼대회	금강센터러움
09/09/05	제안양 등문회 등산	관악산
09/09/23	준비위원회 합동 운영위원회 회의	불타는춘천닭갈비
09/10/02	추석 모임(반장회의 날)	순천고운동장
09/10/18	계경 순증고 한마음가족 체육대회	서울올림픽공원
09/11/01	순천고 30기수 체육대회	동명초등학교
09/11/08	2010 총동창체육대회 성공기원 건 동기 등반대회	백암산(백양사)
09/11/17	40기수 체육대회 준비기수 후배 격려	다도해장어구이
09/11/22	40기수 체육대회 격려	순고체육관
09/11/25	준비위원회 제1차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09/11/30	전년 준비기수 31회 선배 초청 모임	소주본능
09/12/02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09/12/03	총동창회장 취임식 및 송년의 밤 참가	로얄호텔에달홀
09/12/08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09/12/08	계경 총동창회 송년회	프레지던트호텔
09/12/09	계경32회 송년회	프레스센터18층
09/12/11	준비위사무실 개소식 및 송년의 밤 행사	준비위원회사무실
09/12/12	우석산악회 동반 100회 기념집 발간 행사 참석	명문7080
09/12/15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09/12/19	계어 순증고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참석	여수 파트랜드
09/12/22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10/01/01	체육대회 성공기원 신년 등반 행사	봉화산
10/01/05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10/01/10	계경총회산악회	대관령,선자령
10/01/11	계경준비위전체회의	서석대
10/01/14	D-day 100일 촛불기원 행사	준비위원회사무실
10/01/15	계경 순증고동창회장 이취임식및 정기총회 참석	서울
10/01/19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김철현동기사무실
10/01/26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10/02/02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10/02/07	순고 사회인야구동호회(SG stars) 창단 격려	순천복초등학교
10/02/09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10/02/10	계경 상인 간담회	프레지던트호텔
10/02/13	설날 전통기 모임	준비위원회사무실
10/02/20	선배(30회 김성봉) 격려 일원 모임	대정마루
10/02/21	우석산악회 산행 행사 배웅(홍보)	연행농협중앙회앞
10/02/23	계광 순증고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참석	광주 상록회관
10/02/25	순증고 총동창회 임원과의 조찬 간담회	오전식당
10/03/02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10/03/05	순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 간담회	순천복집
10/03/09	준비위원회 주례 이사회	준비위원회사무실
10/03/10	계경 반장 회의	여의도 미스터홍탁
10/03/12	계경 총회 임원회의	국방회관
10/03/12	계광주 32회 모임	돈&돈
10/03/13	순삼이회	창평CC
10/03/14	입회기수 (49회)와의 만남	오리파티
10/03/16	32회 합동 임원회의	준비위원회사무실
10/03/16	직전 준비위원장 허석 선배님 격려	준비위원회사무실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학년 10반이었고 순천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직중인 강윤수입니다. 소식을 접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저는 작년 2월에 이곳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Charlotte)에 있는 UNCC 대학에 연수를 와서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반 일정으로 연수를 왔지만 가능하면 빨리 귀국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무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동기들이 주관한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6월 정도에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군요. 멀리서 마음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김태호, 최종구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동기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대들이 있어 순고32회의 명성은 올 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순고32회 화이팅! 그리고 3학년 때 10반이었던 이상재라는 친구가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화라도 해보게...

【글=강윤수】

중국 친진에서...친동은 가족

다들 건강하신지요! 오랫동안 가족 사진 올립니다. 2010 총동창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 중국 친황도 만리장성 시곡인 '황에관장성'에서



축/하/합/니/다

- 3-1 문승태가 국민은행 부시점장으로 승진
- 3-9 안윤승 대령 진급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 부장으로 근무
http://www.kctc.mil.kr/
- 3-1 박명훈 남해화학 경기지사장 소식 용인에서 근무 중
- 3-12 김철현 개업 주) 리더스
주) 리더스>>>종합 보험 판매 전문회사, 자동차보험비교견적, 화재보험,생명보험, 변액,펀드,등, 보험을 취급하는 하이마트
- 오마이뉴스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2010년 2월 22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며,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정임수(3-9),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 순천시연합11대 회장 취임



▲ "순천농업의 미래로!!! 한농연의 힘으로!!! 열심히 32회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권열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으로 승진

체일기 전남정 정보과로 발령,
근무지는 순천이고 사무실은 매곡동, 관할 출입지역은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가끔은 오해도 받고 가끔은 가슴 아프기도 하고 가끔은 넘 좋은 기억으로 함께한 친구들이기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도움 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많은 지도원단과 성원 바랍니다."

순천고 2010 학년도 대입전형 합격 현황(수시,정시 포함)

서울대 3명, 고려대 9명, 연세대 4명, 서강대 1명, 성균관대 2명, 한양대 3명, 경희대 6명, 한국외대 5명, 서울시립대 6명, 건국대 6명, 숭실대 2명, 동국대 4명, 서울기타지역32명, 총 83명
일본공대 2명, 의지현의대 2명, 사관학교 3명, 교육대 6명, 경인지역 37명, 전남대 40명, 순천대 108명, 조선대학교 25명, 기타 지방국립대 54명, 기타지역 106명 총 383명
총 대입 합격자 : 466명



👉 찾고 싶은 친구들 👈

3-8반 친구를 찾습니다. -- Wanted ^^* --

📍 찾는이 : 박학준

김영준, 김정규, 박학남, 방극세, 서중선, 손우기, 송남수, 신학식, 이용등, 이종면, 장영철, 전성래, 정규석, 정 훈

3-4반 친구 찾기 협조 요망

📍 찾는이 : 이종환

강방원, 강형윤, 김용민, 김춘호, 배주암, 서동훈, 신요수, 안병훈, 이만준, 이성수, 이승훈, 이종순, 정병철, 조영수, 허성수, 홍영길

3-1반 친구를찾습니다

📍 찾는이 : 조성중

김석환, 김진수, 김홍록, 박형천, 이강일, 이만주, 이병곤, 이상진, 이승연, 이영길, 이철형, 이창현

3-11반 (화염속의 TNT) 친구를 찾습니다

📍 찾는이 : 정중희

고영권, 김빈, 김태수, 송수봉, 윤정운, 윤준근, 윤희준, 이갑영, 정태원, 조동철, 최진열, 한승대

3-2반 "기금 수배자" 명단 발표!!

📍 찾는이 : 양재욱

김양주, 배경열, 안권식, 유성기, 이기성, 이상만, 정재영, 채경석, 하창수, 한상태

3-6반 내가 모르는 녀들 찾습니다...

📍 찾는이 : 강재한

김성국 : 키가 아마도 작아서 안보인거 같음.
김성현 : 키도크고 잘생겼는데...어디서 뭐하나 몰라?
남 철 : 코메디언은 절대 아닐거고 남자답게 생긴님인데...뭘하겠어?
박동렬 : 짝꿍 어리버리 생겼는데. 뭐하는지...
박일권 : 앞번호 차지하던 녀름 같은데...
양종렬 : 이친구는 키도 적당하고 적당히 까진님으로 기억 함
유기선 : 순둥이로 기억나고...
이광규 : 비교적 잘생겼던 녀름으로 기억 누구 아는님 있을거 같은데...
임진성 : 이넘이 딱 군인 체질인데...
정영욱 : 꼴좋다 아는 친구 손 들어봐바...
정효균 : 덩치에 알맞게 마음이 어린님이었는데...
양동백 : 썩세 전화 알발내...뭘하고 살지 요즘
김중수 : 언젠가 서울 동기체육대회때 본거 같은디 연락두절

3-7반... 7명... 이 녀름 아는 사람은 사래.. 📍 찾는이 : 신달호

이에 연락이 안되는 녀름... 실종신고 ... 이는 친구 리플 부탁...
김인규. 이넘은 아마 광양님이지.전남대 나와서 서울대서 석사를 했든가.
김재성.. 이넘은 털보..얼굴이 넓적하고.. 눈도 크고 해서 겁나게 생겼지 양민호.. 미술부하든.. 누구 아는친구 있을 것 같은디..
윤태정.. 순하고..착하다 착한...
정용준. 키가 크고 반쯤 까졌던 녀름.머리털기고 하여튼 개 멋이 들었었지..
조근(?)

친구들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찾은 이에 연락주시면 사래하겠습니다

입회기수...49회 후배를 찾습니다

- 박성국 광양 (주)신광건설 근무 010-7185-7882
강동원 순천시청 여성가족과 근무 010-7101-0525
박익태 경대 출신 경찰공무원 011-9623-1250
김현중 경대출신 49회 011-9665-4510
정경달 49회 여주시 보건소 공보의 010-3623-4157
남기문 49회 진해 STX 조선 010-8667-2742
김지욱 창원 010-8310-5608
강철홍 전라남도 도청 010-2610-4075
김선재 전남 광주 치과병원 근무 010-2659-0070
김지열, 김준연, 기정도, 조병기, 서도원, 장원영, 박상모, 이홍주, 이혜지, 조성환, 김철민, 이병훈, 서동우, 한정희, 신성진, 안용준, 남상우, 정다운, 양민모, 강철홍, 허경원, 김광진, 박두재, 최재정, 김진영, 박승모.

입회기수인 49회 뿐만 아니라.....

.....40기수 후배들을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육대회 때 운동장 한쪽이 썰렁합니다.
40기수 후배들의 참여가 없거나 부진한 이유로 운동장 북측 천막 안은 너무 가을철 추수 끝난 자리처럼 허전하여 총동창 가족 체육대회라 는게 어딘가 비어버린 것처럼 텅 합니다.
올해는 40기수 천막의 황폐함, 열렁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불어 함께하는 총동문체육대회가 되게 우리 한 번 노력해봅시다.



▲40기수 재운 공무원 일동

감히 호소합니다...반장님들만 보십시오...아무나 보세요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4월 25일 이니 이제 불과 두달 남았습니다.
기획이나 행사 준비는 순천 총괄팀에서 빈틈없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 참여 인원) 과 (준비 기금 모금) 입니다.
행사 인원 동원은 막판에 가서도 충분히 가능 할거 같아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준비기금 모금이 초미의 일 인거 같습니다. 이미 일년 전에 체육대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총무와 반장들이 선임되어 모였을 적 분위기만 해도 준비기금 모금은 작년 말에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남은 작금의 현실을 보면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각 반 반장님께서 각반 개개인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저가 몇 년 전에 총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동창들은 참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총무짓 하면서 동창생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라는 직책을 걸고 전화를 하니 모두들 '수고한다.'고 적극 협조를 하여 주었습니다.
각반 반장님들 !
지금쯤 전화걸기가 힘들더라도 공적인 업무이니가 반원들에게만 이라도 전화한통 하시면 많은 부분이 순식간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 냥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호소문이니 제 주장이 틀리더라도 나무라지는 말아 주십시오.
【글=박재진】

반창회 소식

☞ 일정별

- 1.27 재경 6반, 본가 2반, 재경 10반
1.29 재경 12반
1.30 본가 11반
2.02 본가 1반, 재경 4반
2.04 재경 2반, 본가 10반, 본가 4반
2.05 본가 6반, 재경 1반 본가 12반
2.06 본가 7반
2.07 본가 8반
2.25 재경 8반, 본가 4반, 재경 7반
2.26 재경 9반
3.03 재경 7반 (2차)
3.04 재경 3반
3.06 본가 7반 (2차) 본가 6반(2차)
3.08 재경 8반 (2차)
3.10 본가 10반(2차)
3.12 본가 12반(2차)

공모합니다... '반창회에 참석률을 높게 하는 방법'

서울서 처음으로 6반 반창회를 합니다. 이번 6반 반창회는 비단 6반만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걸 이 글을 보는 동기들은 잘 아실겁니다.
작년부터 각 반별로 이미 반창회를 실시한 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을 하신 반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참석률을 높이는 의견이나 방법을 개진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천한 동기중 6반이 있다면 참석을 적극 권유하여 주십시오. 6반만의 행사가 아닌 32회 전체 행사라 여기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10명 이상 참석서 협조해 주신 동기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저녁밥은 내가 쏘다.

공기밥만.....ㅋㅋㅋ
참석 댓골 달고 참석합니다. 김용순 반장이 고생을 마니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나올래!! 얼골 한번 보자 ~!!!!

서동석 : 각 개격과..점점이 전화한통씩 때리든 뭘했...행운권하나 포장 하고 소병화 : 각개전투, 1대일 다이다이!!! 11반 김경수 반장은 14 명중 11명 모았부렀다!! 감성에 호소하는 문자만으로도 물어봐!
제일기 : ...아아 6반 6반이 최고야...갑자기 용순이 없는 6반은 생각 할 수 없다야 고생많다 고향방 재한인도 곧 동참 모임 알릴 것이다...

과격 : 일대 백 신청해서...오라 해바바, 돈 판며는 뽀빠이 안하는 조건으로다. 아님 머 신라호텔 꼭대기에 부부동반 공짜로 하던가... 예술의 전당도 랜잡겼지???
유갑식 : 진짜 좋은 방법이다~~ 과격이 느그반은 그리해라. 돈 안들이고 뭐 거시기한 방법은 없냐??
강재한 : ...어이 친구야 자고로 흠에다가만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전화해서 잡아야 한다...의외로 흠피 양보는 녀름이 많으니가 무조건 손전화로 약속받아내고 문자 넣고 ~~~~
【글=유갑식】



재경 10반 반창...장광모!!

밤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퇴근하자마자 곧장 사당행 버스를 탔다...저라철이 빠르긴 한데 시간이 남아도느니라 버스를 선택했다..
7시5분전에 정확히 도착해서 맥주에 일세주를 맡아서 한잔 뽏고 있는데 아무도 안온다...
장광모는 모처럼 차를 두고 버스를 탔는데 빙빙 돌고 한정거장 지나서 부만다. 참 이놈 신기한 놈이다..병철이가 먼저오고 창균이 오고 조일연 오고 재신이 오고 조동석이기도 오고 남양주에서 진은선이 오고 김재연...김형태...장광모...약 9명 나까지 10명이 보따시 되었다..
12반 원짜리 모뎀회와 해삼 명계 피조개 전복 등 등 안주는 남도해 산물이라 먹을만한다...자리가 좁고 소란스러운게 조금 불만이었지만 쏘라 떠돌고 웃고 ..한 참을 즐겼다. 소주 열병병이 비워지고 정리할라던기 우창균이가 화장실 가는척 허더니 슬기순에 용감하게 술 값 개리고 와분다...역시 한전은 신이 다니는 직장 맞나보다...여기서 반창 장광모 노래방으로 끌고 간다...딱 한 시간 노래 부르고 혼돌고.... 노래방을 나왔다 이때가 12시가 다됐는데 최중우위원장 사당으로 온단다. 기어이 맥주 한잔 더 하자고 오고 조동석 한 병씩 딱 마시고 나왔다. 사진은 여기서 부터...장광모 갑자기 허둥대더니..침 갔던 식당부터 더티기 시작한다. 왜그냐 했더니 핸드폰이 없단다...전화 걸어보니 전원은 꺼져 있다...다 돌아보고 다시 노래방 카운터 까지 갔다가 없다는 말 듣고 계단을 올라 온다...광모 마치 뒹꾸머리가 불룩 하다...야!! 이 둘대가리야 핸드폰 나 뒹꾸머니에 있잔나? 했더니

계면책에 꺼내든다...하이간 어리버리 맞긴 맛다....지가 전원도 다 꺼 놓고..이 화상 번 죄를 지었거나 노래방감시로 전화를 끈거다...
문당이...재신이 차 일어 타고 대리해서 가면서 장광모한테 팔 들어라고 전화 했더니만 ...해해 웃음시로 병철이랑 오맹 목고 있다고 자랑한다...
어쨌든 10반이 어찌어찌해서 1월에 반창회를 마졌다...췌됐다 광모야...암만 생각해도 나가 사업한다는게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ㅎㅎㅎ
【글=서동석】

재경 12반 말반 반창회...마니 도였네

아~스바리 쏘라 장황하게 쓰고 입력 누르니 로가웃되가고 날라가볼고 췌되아부렀네...ㅠㅠㅠ 하여 짚게 쓴다.
12반 총 14명 참석...위원장 ...총무2...조직담당 준비위원 유갑식 등 총 18명이 모여 웃고 떠들고 취하고 건배하고 다짐하고 하였음...
동창회사상 최초12반 반창회에 남 많은 인원이 나와 총무 었되다보니 과용하여 1차에서 졸도...2차는 기억에 없음...누군가 날 집앞에 태워다 준거 같음...유모세..ㅋㅋ 감사하여간 32회 좀 겁났다 사실임...유병남, 유라경, 허화만, 최진우, 강중희, 김남현, 이승규, 안상보, 박상희, 염승렬, 양권열, 김한성, 정태성...그리고 고재교. 참석해준 12반 친구들 감사하고 이승규 반장님과 양권열이 지갑을 열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맴스열라.
【글=서동석】



▲본가 6반, 12반 향공에 김태호 준비위원장과 건배 ▲ 12반 반창회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달려온 6반

◀ 재경 3학년 1반 반창회 (2/05월)

3-2반 순천 반창회를 했습니다!!

어제(3/2 水) 6시 40분쯤 연합동 송림원에 도착하니, 진형식외와 정상선이 전례로 쭈꾸미를 볶고 있었다. 이런 저녁 얘기를 하다보니, 김상태 전화가 온다. 형식이 바로 나가서 모셔오고, 바로 김중호 따라서 들어온다. 오늘 정원의 딱 절반으로 반창회 간선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ㅎㅎㅎ

정경식 선생 이야기 부터 여러 친구들 소식이 전달된다. 이때 우리반 2번 김희주(이남이 재수할때 나 담배 갈지했 넌이다 ㅋㅋ) 소식 전해듣고 바로 전화 때웠다. 목소리 그대로다. 자식이..아직 장가도 안갔다는데... 절때 내려오면 만나기로 했다.. 상선이 그래도 들으려 노래방 갈러는데..우리의 김중호 성아(ㅎㅎ)가 술값 개리랬다.(중호 생이는 대대에서 "무진"이라는 장어집 한탄다) 노래방에서 역시 상선은 옛날 실력 발휘한다. 활기가 넘는다.ㅋㅋㅋ 옛날 버섯 나오는 친구, 더듬는 친구, 보듬는 친구, 벗기는 친구, 노래합사흥 들어대는 친구

정말로 오랫동안 즐겁고 뜻똥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이니 많은 친구들의 근황과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 32회 동기들의 올바른 전체 모습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구들이!! 반창회로 부터 우리 32회의 기초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많은 친구들이 만날 수 있게 노력합시다!

사랑해~~ 쫌~오~우울!!

【글=양재욱】



2월26일...과개기 日記(제경 9반)

2/26, 금, 날씨 절라 맑음
오늘은 3학년때 졸업 친구들 보는 날 마니를 나올까 고민하다 오후 5시쯤 익원아파트서 저나가 온다(이 녀름은 쪼매 늦을꺼라 했는디...) 집에 가야겠다 한다.(익원이 난 담배 나한테 주겨쓰!!!!) 6시 반쯤 총채한테서 저나가 온다 시방 출발 하나만 20분만 기다려! 해놓고 지하 2층 주차장엔 내려갔는데...고객의 전화다 문제가 생긴거다, 고민... 포기하고 출발 30분 늦게 약속 장소 도착하니 윤철이하고 홍재 두님이 막걸리 한주전자하고 김치 한사발로 사오심분 절라 눈치보면서 개기고 있었다(절라 융통성 없는넌들이다. 어차피 무릎거 훑어 한접시 시켜놓고 있겠는...)한 10분 지날까 오성이가 온다 (이남은 졸업하고 2004년인가 반창회때 보고 친이다) 한 10분 지날까 성도가 온다(이남이 아작까정 점병을 시간간다...) 친구를 불러고 빨리 왔었다 (참 착칸넌이다 성도는...) 근디 이남이 잘 이상타 술 목는 것도 엄청 슬로리 이고...절대 지방 방송도 안한다(이상하다???)

무경이는 요즘 개성공단 들락거리느라고 오늘도 개성에서 내려온 날이다. 상일이는 도착하자마자 용건이는 통화가 안되고 진철이는 퇴근하고 대전서 출발하여 꼭 온다 했었다 상일이 오기전에 병호가 서총 픽업하여 먼저 도착파 우리의 서총 인생 꼭 피곤한 날이다. 근원일 바리스타짓거리에 도저히 몸을 못뚫다 그리고...(돈 마니 버러라 근열야~) 재성인 평촌에서 다른 모임 파장하고서야 출발 한다는디...용길, 익원, 훈상은 내 총 씹는다(담에 다 주겨쓰...) 중주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사는넌일게...어디서 1차 하고 오تما 잠깐 왔다가는 또 목동으로 간다(졌다 중주야~나중에 복 마니 받들거~)

2차로 옮길라는데 대전에서 올라오는 진철이가 도착, 진철이도 다들 올만에 보는 친구들이지만 낯선기 안된다 (울 친구를 만세이!!) 그런것 같다.그런게 찜 찜이 싫다. 그래서 벚꽃 밑에 있는 교문을 3년동안 가지 들락날락 했다는 인연으로....

2차 끝날 때 춤 재밌다가 온다(ㅋㅋ 해쯔는 춤과 돌고이자는 계획대로 피가는군 ㅎㅎㅎ) 노래방으로 옮겼다. 역시 화류계 엔터테인 재성이다 (늦게라도 올라오라고 힘박 잘했다...) 다들 줄라 율실히 노래 잘한다. 여기서 끊을란다(이어서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다) 【글=과객】

1등반 “본가 10반” ...반창회 상황보고?

“1등반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시사 풍자 개그는 너무 각박한 문장이지만 역시 열반은 일등의 자국이 있었습다. 치근적인 사정으로 약속시간 15분 늦은 시까; 반창회 모임 장소인 “오메가베” 뒷집에 도착해보니 여수에서 올라온 이희형 반장, 송기명 친구, 윤, 순천 고2 김철원 반장, 임재주 친구, 김성홍 친구가 6번 도착해서 반갑게 맞이했다.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태호 준비위원장까지 특별히 열반 반창회에는 꼭 나오고 싶었다는 위원장님 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후 27년 만에 처음 참석한다는 송기명(한화학석유화학 여천공장P.E생산 팀장) 동기가 더 더욱 반가를 수 밖에...송삼갑, 김희석, 하영철, 정삼균이가 줄줄이 시간차 공적으로 나타나고, 드디어 10반의 턱걸이 숫자 열명이 꼬박 채워집니다. 이과대표 이사명함의 임공규 동기는 반창회 활성화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금일봉까지 준비하여 추가로 남시고, 수석감사 채일기 동기가까지 13명의 돌격대들은 무수한 건배제와 합성으로 회장을 초도화 시킵니다.

이희형 동기의 “열거주~” 하던 나머지 친구들의 “쫌~~~타!!!” 건배부터 “10반의 모듬액은 심시어반” “더 하고” “열반이 2등으로 떨어지는 일은 우리 사정에서 완전해” “빼고” 많은 건배가 허공에 난무합니다. 참석인원 및 모듬액수에서는 절대로 2등은 할 수 없다는 다부진 각오가 곁들여 지고 “32회 동기마라톤에서 영원한 “페이스 메이커”를 담당하는 10반”이라는 결의가 메아리치면서 반창회 모임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32회의 미래는 열반의 힘으로~” 역시나 대안합니다.소주가 30명이상 쌓여갈 즈음~ 서로 계산하겠다는 넌들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참석 1등 상금으로 받은 돈 외 25만원은 모듬액에 현금 결정! 술값은 일평 “폼페이”로 해결합니다.

바로 열 건물에 위치한 “비어보스”로 맥주 입가심 2차 이동할 참!나 송기명 동기의 구두 분실 사건! 전적이 있어 살짝 맛이 간(?) 임재주 동기가 바꿔 신고 2차 맥주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절대로 자기 신발이라고 끝까지 우겨냅니다.. 환장했습다. 2차 맥주 집에서는 3학년10반 반창회를 매년 3월10일만 거행하는 것으로 의기투합하고 금년부터 실행기로 결정하였다며 신포하면서 막을 내리고, 송기명 동기가 처음 와서 미안하다며 2차 술값을 계산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 제가 열반 개래부렀습다. 정말 즐겁고 행복만 하루였습다. 여타 사정으로 참석 못한 동기들도 꼭 보고싶다는 마지막 마법과 함께 “이상~~ 32회 10반 반창회 상황보고를 가름합니다.” “다음에는 대전, 광주, 부산 및 제경과 함께하는 10반 반창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글=정철원】



▲본가 3-10반 2차 반창회(3/10)

제경 8반 반창회 후기 -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린 목을, 예정대로 반창회를 했다. 아아 졸업 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다. 우선 참석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중수, 박형석, 주낙봉, 황종하, 이정복, 이진호, 박관호, 김영연, 저 특별 게스트: 소병화, 서동석, 2차에 나온 중주, 관호: 졸업하고 처음 만난 것 같음. 시내 마트 어디에선가 스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무지 반가웠다. 오래만에 나왔다고 1차를 관호가 왔다. 고맙다. 관호야, 같은 동네이고 하니 앞으로 종종 만나자. 나봉: 졸업 후에 처음 만난 것 같는데, 당사자는 체육대회에서 만난 적이 있기는 하는데 기억이 없습다. 중하: 얼마 전에 전역을 하고 여의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종하도 오랜만에 만남. 28년 간의 추억을 되새기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여러 사람 용서지 하고, 예기하다 우리 용서할 사람이 술잔이 었더라고. 3-8반 담계 3월 8일 저녁 8시에 사망영 8반 출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아직은 부진한(?) 우리반 조만간 발동 질서이 행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모두들 약속을 했으니 우리 반의 활약을 기대하시길~ 【글=문순선】

제경 7반 반창회 후기-20분만에 모두 참석한 반

독구멍이 또뜨고있는 해도 반창회를 소홀히 할수 없어 7반을 하원 을 나와서 먼저 도착한 병화와 힘쓰고 들어갔다. 과연 20분은 몇명이 나 오일까? 병화의 예민한 눈금으로는 7+1명 정도라나! 글썽!!!

30분, 안병도하고 이돈복이 같이 들어오고, 31분, 오래간만에 김정환이 멀리 일선서 방이동까지 찾아와주니 불영영오아라!(근태, 이거 맞나?) 35분, 유상연, 김문갑, 주양돈이 문을 열고 들어 선다. 40분, 김백문이 합류하니, 일단 병화의 예상이 맞나보다 싶은데,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암! 45분, 영적이가 참석해달라는 문자가 불쌍하고 가련해서 온다며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들어온다.

20분만에 모두 참석한 반은 처음이라고, 병화가 좀 놀라는 눈치다. 화와 안주가 푸짐하게 들어오고, 술잔 부딪히는 횃수는 늘어만 간다. 참말로, 반갑다. 기쁨은 같이하고, 슬픔은 나눔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자며, 웃고 떠들다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술재 유상연의 빈틈없는 기억은 우리 모두를 30년 전으로 데리고 가는 마법이었다.

9시 30분, 근처에 사는 2반 허철을 불러 내었다. 양돈이가 웃도더는 벗지말라고 철이에게 한마디 충고를 한다. 10시30분, 멀리 방이동까지 오라고 했으니 미안해서 살짝 먼저 술값을 계산하고 앉으니, 최중구 위원장이 곧 도착한다고 전화가 왔다. 정말로 친구이지만 존경스런 우리의 위원장님이시다. 2차로 맥주 집으로 옮겨 한잔 더하며 떠들다보니 어느새 12시가 다 되어간다.

야들야! 이제 집에 좀 가자. 응! 아침에 쓰린 속을 붙잡고 일어나 보니, 어چه 꼭 왔어야 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왔다. 일평이, 병욱이, 재권이 함께 하는 친구로, 오래오래 살자. 【글=오규식】

제경 2반 반창회, 그 후일담!!

제경 2반 반창회, 그 뜨거웠던 현상!
순고의 미래는 32회의 힘으로! 32회의 미래는 2반의 힘으로!!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어제가 마침 입춘이었다.

가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허철, 얼굴에 남겨진 연륜 만큼 삶의 깊기도 더해진 것 같아 정말 보기 좋았다. 기금 남부 예정액을 보고 붙잡아 화를 내던^^ 강창문, 그리고 이영욱! 도대체 얼마를 더 내려고 그러는지, 거참 말릴 수도 없었~ㅋㅋ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말이 뻥이 아닌 듯 실감나게 본인의 도맡고 가정생활을 설명해 나가는 창문이기도, 이제는 사장님의 품고자 자연스레 배어 나오는 영욱이도 너무 반가웠고...이선주 잠이 온다던 감찰부장 사효는 대신 친구와 함께 왔지만 여전히 입담에 좌중은 배꼽을 잡고, 간만에 본 박순문이는 영의도 증권가에서 채권전문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낸다. 광고주와의 약속만 임찍 끝내고 참석해 준 박계남이와 더불어 어찌던 그리 기억력들도 좋은지... 정경식 선생님을 회상하면서... 성대모사를 결단인 “에이 컴퓨터~라~”, 잃어버린 유디창 찾기 “조를 짜거라”, 바셀로우너 오한영 선생님 등... 아무 적 없는 은사님들도 어젯밤엔 기가 많이 가려웠으리라...간만에 얼굴 본 진태국외도 예의 성실함과 바른생활 사나이의 면모가 여전했고... 풍채 좋은 김규식이는 캄백 약속을 잊을 뻔 했지만 사람 좋은 웃음으로 좌중을 웃긴다. 평생 듣지 않을 것 같던 김희주를 근 30년 만에 본 친구들은 환호성과 함께, 우리가 이젠 결코 “청년”이 아님을 실감해야 했다. 최우야, 정말 반가웠다. 32회의 최고의 기수는 “You mean everything to me!”를 잘 부른 정상선이나, 아니면 최고의 트로트 가수 이영옥이나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순문이의 “쓰나미주” 제조 비법도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했다. 누구보다 바쁜 가운데서도 최중구 위원장이 참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어 고맙고, 마담발 총무 소병화도 봉투 들고 와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불침객 고재교도도 빛 바랜 주소복을 들고 자서 글까지 자리를 함께했고, 피치 못할 실악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김중수는 3월달 “창기외장” 초대 목회로 미안함을 대신했고, 오마이뉴스 오연호는 2/22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식 초대로 반창회를 축하해줬다.

단합된 힘은 다음 해 기념남부로 증명된다는 순문이의 말에 공감하며, 모두가 반장이니 힘을 합쳐 4.25 행사에 총력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모임이 마무리 되었다.

“32회의 미래는 2반의 힘으로!”라는 힘찬 구호와 함께... 고맙고 사랑한다, 친구들이~ 【글=문순선】



▲제경8반 김중수, 박형석, 주낙봉, 황종하, 이정복, 이진호, 박관호, 김영연, 소병화, 서동석

추억의 ‘단어찾기’

정철원이 적어본 추억의 단어찾기 입니다.
입학식, 커피, 나이키운동화, 아그리파, BB봉구, 교련북, 300점, 독순이, 옛센스, 주빈, 막걸리, 두발검사, 맹꽁이신발, 교복, 순고묘표, 똑딱이이플로, 호크, 배꼽바지, 83학년, 행군, 주초고사, 금강, 계수, 성적표, 야간자율학습, 성문종합영어, 내신15급, 체육장 받음잇은그대에게, 음악다방, 여상고, 자천거통학, 자취, 클래식번호맞추기, 보은도시락, 학력고사, 서울농대, 책가방, 도둑담배, 교련북, 하숙집, 까까머리, 벚꽃, 수1의정석, 교문, 성적표 수수미양가, 고고장, 허슬, 4당5락, 동경대시험문제, 김삼, 올드도세계를주름잡기위하여, 불태안경, 독해, 니콘, 청소년기, 양궁부

박승희 :

뽀순이...ㅋㅋ 워담...우장... 반강포스터... 멸공포스터...뽀뽀...말죽박기,시민다리... 콘데...뽀뽀...몽땅연필따먹기, 짹짹이...라면명,뽀뽀야...뚝고다이... 껌끼...아이스키어(아이스깨개있어) 흰/검고무신...올파사, 땀다?→검실는자전거...삭실세...위생탕...남파... 스포츠머리...마리깡...버스내내양...오라이~... 당고바지...송진 책상등...통형금지...두발저울화... 카세트...통기타...로망스....

김태호 :

바실로우너
조현호 : 수호영애, 청소년기
양재욱 : 통학차, 가방쌍기, 단교바지, 플라스틱(장), 금다방, 금강골목, 뽀깁깁.

박우준 :

파카 켈! 오늘의 명인! 청소년 안한눈 칠판에 적기! 점심시간에 먹던 설맛탕! 박재진 : : 중앙동 금강점

유갑식 :

까지 담배, 매점, 체육관 뒤편, 반성문, 분필, 추억이 파노라마네... 주양돈 : : 태극당 빵집
이대식 : 슈바빙... 탁구... 탕관쟁두... 애마부인... 육순80... 독서실... 주초고... 해태타이거스... 세라북....

박홍일 :

간양~
소병화 : 장대다리, 철도운동장, 뽀깁, 오바르키이름표단기,
송국평 : 금다실 은다실 켈러크 엑스리온 ...
이승규 : 양한백정,배정근,교련선생,준수,국평이아빠, 대시기형님
서동석 :

왕금환,정경,맘모스극장...중앙극장...국도극장...뽀우리...뽀맹이...아티반...물파와물파사...편지, 중앙...나나...바라바...

에잇..그만...

과객 : : 학교, 집, 도서관 밖에... 【글=문순선】